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방법에 따른 조화 영역과 부조화 영역

임 지 영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전임강사

The Harmony Range and the Disharmony Range According to Types of Coloration in Men's Shirts and Neckties

Ji-Young Lim

Full-time Instructor, Div.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2007. 5. 1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armony range and the disharmony range by evaluating the degrees of harmony in terms of types of coloration in men's shirts and neckties. In addition, the study aimed to examin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towards degrees of harmony affected by types of coloration; tone on tone coloration(64), tone in tone coloration(96), contrast coloration(128), achromatic-chromatic coloration(96), and achromatic-achromatic coloration(16). The 4,032 male and 4,032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five types of coloration, the harmony range and disharmony range were identified. Tone on tone and achromatic-chromatic coloration had a more wide range than tone in tone and contrast coloration from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male students had a more wide range of harmony on all coloration.

Key words: harmony(조화), types of coloration(배색방법), shirt(셔츠), necktie(넥타이)

I. 서론

현대 남성 패션 시장의 변화속도는 빠르고 디자인 또한 감각적이다. 기존 포멀 그룹인 정장군을 중심으로 한 남성패션 시장은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개별성이 존중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고 창조하게 되었으며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취향을 다양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만들고 있다.

남성복 중에서 셔츠는 남성에게 수트 만큼이나 신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이며, 넥타이는 모든 남성들에게 나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 고유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단 하나의 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셔츠와 넥타이는 남성복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들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복에서의 색채조화는 매우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객관성을 띄기 힘들다.

색채 조화감에 관한 선행연구¹⁾⁻⁴⁾에서 배색방법에 따라 조화로운 배색을 규명하였으나 한복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복 배색에서 조화로운 배색이 그대로 남성복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남성복의 배색에 관한 선행연구들⁵⁾⁻¹¹⁾을 보면 남성복의 색상과 넥타이 또는 넥타이 무늬 등을 조합시켜 이들 변인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남성복에서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을 톤 온 톤 배색, 톤 인 톤 배색, 컨트라스트 배색, 무채-유채 배색, 무채-무채 배색의 5가지 배색방법으로 코디네이트 시켜 이들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여 남녀 대학생들이 느끼는 조화 영역과 부조화 영역을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배색조화의 이론정립에 기여하고, 배색방법별로 색상과 톤에 의한 조화판단에서 배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감성을 통계학적 방법으로 수량화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얻음으로써 남성복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색채조화는 “조합된 색이 아름답고 좋은 느낌을 갖춘 상태”이며 색들의 관련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고¹²⁾, 색채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기본 요소에 준하여 균형을 취해야 한다.¹³⁾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함께 배색할 때 어떤 관계에 있는 색채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연구는 반대색의 조화나 명암 대비법을 사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화에 관한 이론’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질적인 배색조화 이론은 1835년에 발표된 슈브릴의 배색조화 이론을 필두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설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색채조화의 공통된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생리적 균형이나 물리적 수치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두 색 또는 그 이상의 색을 혼합하여 중간회색(medium grey)이 되면 조화롭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배색이 되는 두 색의 회전 혼색이나 물감 혼색에서 N5의 균형점을 가지거나 색채의 면적비를 달리하여 회전 혼색 시켜 N5의 균형점을 가질 때 그 배색은 조화를 이룬다. 둘째, 색채 중에서 원칙에 의해 규칙적으로 선택된 색은 조화가 이루어진다. 분과 스펙서의 색채조화론에서는 ‘질서(order)’의 요소가 미도(美度)를 높이는 힘이 되며, 오스트발트의 색채조화론에서는 기하학적 관계에 있는 색채들끼리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색채 중에서 무채색은 거의 모든 색과 무리없이 어울리므로 유채색과 조화를 이룰 때 사용된다. 셋째, 배색방법, 면적 등이 애매하지 않고 명료하게 선택된 배색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즉, 거의 같은 색이나 면적들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고 색상, 명도, 채도 차이와 면적 차이가 확실한 색들이 조화를 이룬다. 넷째, 배색에서 색들이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색채군이 조화된다.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적으며 서로 가깝다고 느껴지는 색채들이 조화를 잘 이룬

다는 것이다. 연속하는 색채의 조합은 색상, 명도, 채도가 균형을 이룬 변화를 가질 때 생기는 색채의 조합이다. 이들 색채는 색입체 내에서 수직, 수평, 사선, 원, 타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색들은 조화된다. 다섯째, 반대색이나 보색 관계에 있는 색들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대비의 원리는 색의 속성들이 모호한 점 없이 서로 반대되므로 뚜렷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단, 순색끼리의 조화는 너무 강하므로 명도를 높이거나 채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배색의 목적은 여러 가지 색을 의도적으로 조화 시킴으로써 디자인의 전체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배색은 필연적으로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대비관계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효과를 얻는다. 색상과 명도, 채도의 관계를 교묘하게 조화시키는 전개방법을 연출함에 따라 다수의 배색 변화를 얻을 수 있으며, 배색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색상과 톤은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항상 공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색상조화에는 색상과 톤이 적용된 배색이 전개되어야 한다. 패션디자인의 색채 조합에서는 통일의 요소로 색상이, 변화의 요소로 색조(tone)가 많이 사용되었다. 유사 색상이나 대조 색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색조 차에 의한 대조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채도와의 조합에서 높은 조화도를 보이며, 채도 변화에 의한 색조 변화보다는 명도 변화에 의한 색조 변화 시 더 조화도를 높일 수 있다¹⁴⁾고 분석하여 문과 스펀서의 색상에 의한 방법보다 명도 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는 색채조화론을 지지하였다. 국내 세분 시장별 활용색과 배색 특성을 살펴보면 동일 색상 배색이나 동일 색조 배색, 또는 무채색 간의 배색, 저채도/저명도와 다양한 색조 조합 간의 배색이 높은 조화도를 보이고 활용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¹⁵⁾⁻¹⁷⁾. 또한 현대 여성 패션의 8가지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 중 무채색과 유채색의 코디네이션과 동일 색상 코디네이션, 대조톤에 의한 색채 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그러므로 현대 패션은 다양한 색상 배합을 시도하기 보다는 색상 배합이 비교적 용이하고 무난하면서도

조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색상 배합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톤 사용에 있어서도 강한 시각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채조화론의 적용으로 분류되는 조화 영역별 배색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동일 색상들의 배색은 대체로 미도가 높은 편이었고 제2부조화 색상들의 배색은 미도가 낮았다. 유사 색상 중 빨강색 계열의 배색은 미도가 높았으며 노랑색 계열의 배색은 미도가 낮았다. 제2부조화색 계열, 청록색 계열의 배색은 미도가 높은 편이며 남색 계열, 보라색 계열의 배색은 대체로 미도가 높았다¹⁹⁾.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조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²⁰⁾, 파랑 계열은 검정색이나 흰색과 대비 시 가장 판독성이 떨어져 조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색은 검정과 흰색과의 조합이 조화도가 높으며 출현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²¹⁾. 의복 유형에 상관없이 의복 색이 무채색일 때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며²²⁾, 상의에 난색계 색상의 페일, 비비드톤의 배색은 여성스럽고, 다크톤을 배색하면 남성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 또한 비비드톤의 동색 배색이나 비비드와 페일의 톤조합은 활발함을 증가시키나 다크톤과 무채색의 배색은 활발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상하의 색상과 톤이 동일 배색이나 유사 배색인 경우에 친숙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슈트, 셔츠, 넥타이의 색이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²⁴⁾에서는 조화·사회성과 현시성의 두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착용자에 상관없이 감색(navy blue)과 회색(gray) 슈트(suit)가 조화·사회성 요인에 효과적이었고, 20대 모델일 경우 슈트색이 중간 톤이거나 약간 높을 때, 50대 모델일 경우는 낮은 톤일 때 조화·사회성 요인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자²⁵⁾²⁶⁾, 강경자 외²⁷⁾²⁸⁾는 톤 인 톤 배색, 톤 은 톤 배색,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 컨트라스트 배색 등을 중심으로 한복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체계화하였다. 모든 배색방법에서 한국 여대생은 조화감을 느끼는 배색의 분포 범위가 좁은데 반해 미국 여대생들은 광범위한 것

으로 나타나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색상을 기준으로 한 톤 인 톤 배색방법보다 톤 온 톤 배색이나 무채·유채 배색과 같은 명도 차에 의한 배색이 상대적으로 더 조화 범위가 높게 나타나 문과 스펜서의 색상에 의한 방법보다 명도 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이상의 패션디자인에 사용된 배색방법과 색채조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 색상의 톤조합에 따른 톤 온 톤 배색, 동일 톤의 색상 조합에 따른 톤 인 톤 배색, 반대색의 다양한 톤조합에 따른 컨트라스트 배색과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 그리고 무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의 5가지 배색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화감 : 본 연구에서 조화감은 자극물의 두 색상에서 평가자가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심미적인 측면과 관련된 주관적 반응을 의미한다.

2) 배색방법 : 본 연구에서는 이경순, 김희섭²⁹⁾이 나눈 배색방법을 토대로 톤 온 톤 배색, 톤 인 톤 배색, 컨트라스트 배색, 무채-유채 배색, 무채-무채 배색을 선정하였다.

· 톤 온 톤(tone on tone) 배색 :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톤의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배색으로,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넥타이의 색을 통일하고 셔츠의 톤과 넥타이의 톤을 달리하여 조합한 배색을 말한다.

· 톤 인 톤(tone in tone) 배색 : 톤은 같거나 가깝게 하고 색상을 다르게 조합한 배색으로,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넥타이의 톤은 동일하게 하고 셔츠의 색과 넥타이의 색을 다르게 조합한 배색을 말한다.

· 컨트라스트(contrast) 배색 : 강한 대비를 이루는 배색으로 보색, 분보색, 중보색 등의 색상, 명도, 채도, 톤을 대조시켜 얻어지는 배색으로, 본 연구에서는 셔츠를 기준으로 분보색이 되는 넥타이의 색을 조합하되 셔츠와 넥타이의 톤을 달리한 배색을 말한다.

· 무채-유채 배색 :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채색의 셔츠와 유채색의 넥타이로 조합한 배색을 말한다.

· 무채-무채 배색 : 무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채색의 셔츠와 무채색의 넥타이로 조합한 배색을 말한다.

이들 배색은 또한 실제 마켓 조사에서도 활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주로 여성복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남성복의 배색방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 배색을 남성복에 적용시켜 셔츠와 넥타이 배색의 조화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조화 영역과 부조화 영역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넥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분척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될 의복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서 5월에 걸쳐 백화점과 할인마트, 로드샵을 방문하여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색상은 흰색을 비롯하여 빨강, 파랑 계열을 기본으로 보라나 초록을 비롯하여 옅은 컬러에서 짙은 컬러까지 다양한 색상과 톤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시기에 각종 정보전문사이트³⁰⁾³¹⁾에서 04년도부터 05년도에 새로이 부상하는 유행컬러로 초록을 예견하였고, 실제로 Market Color 조사에서도 보라와 함께 초록이 유행컬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에서도 나타나 보라와 초록이 inner wear의 season best color(CFT)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색은 셔츠색을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구분하였다. 즉 유채색은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 난색과 중성색으로 나누고 유행컬러가 조화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빨강, 파랑, 보라, 초록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톤			
	비비드(vivid)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
빨강(red)	5R 4/14	5R 8/6	5R 5/6	5R 2/6
주황(orange)	5YR 5/10	5YR 8/4	5YR 6/4	5YR 2/4
노랑(yellow)	5Y 4/14	5Y 8/6	5Y 5/6	5Y 2/6
초록(green)	5G 5/10	5G 8/4	5G 6/4	5G 2/4
파랑(blue)	5B 4/14	5B 8/6	5B 5/6	5B 2/6
보라(purple)	5P 5/10	5P 8/4	5P 6/4	5P 2/4

색상	톤			
	흰색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
무채(neutral)	N9	N7	N4	N2

4가지 색상을 선정하였고, 무채색은 흰색,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 4가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넥타이색은 셔츠색을 기준으로 각 배색방법에 맞추어 색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톤은 색채조화를 주목적으로 한 컬러 시스템인 일본색연배색체계(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색채조화에 있어 색상에 의한 방법보다 명도 차가 조화에 깊게 관여한다는 문과 스펙서의 색채조화론에 따라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 덜, 다크의 3가지 톤과 색상의 기준이 되는 비비드톤을 합하여 총 4가지 톤으로 선정하였다. 셔츠와 넥타이에 사용된 색상과

<표 2> 실험설계

배색방법	변량		독립변인의 조합
톤은 톤	색상	R, B, P, G	색상(4)×셔츠톤(4)×넥타이톤(4) = 64
	셔츠톤	v, lt, d, dk	
	넥타이톤	v, lt, d, dk	
	성별	남, 여	
톤인 톤	톤	v, lt, d, dk	톤(4)×셔츠색(4)×넥타이색(6) = 96
	셔츠색	R, B, P, G	
	넥타이색	R, YR, Y, G, B, P	
	성별	남, 여	
컨트라스트	셔츠색	R, B, P, G	셔츠색(4)×넥타이색(2)×셔츠톤(4)×넥타이톤(4) = 128
	넥타이색	R, Y, G, B, P	
	셔츠톤	v, lt, d, dk	
	넥타이톤	v, lt, d, dk	
	성별	남, 여	
무채-유채	셔츠색	N9, N7, N4, N2	셔츠색(4)×넥타이색(6)×넥타이톤(4) = 96
	넥타이색	R, YR, Y, G, B, P	
	넥타이톤	v, lt, d, dk	
	성별	남, 여	
무채-무채	셔츠색	N9, N7, N4, N2	셔츠색(4)×넥타이색(4) = 16
	넥타이색	N9, N7, N4, N2	
	성별	남, 여	

* 유채색 - R:빨강, YR:주황, Y:노랑, G:초록, B:파랑, P:보라
 무채색 - N9:흰색, N7:밝은 회색, N4:어두운 회색, N2:검정색
 톤 - v:비비드, lt:라이트, d:덜, dk:다크

톤은 <표 1>과 같으며, 색상의 표시는 실용한국표준 색표집³²⁾에 근거하여 기입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남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 바지는 통제하였다. 셔츠는 레귤러 칼라 셔츠를 사용한 기본 드레스 셔츠이며, 넥타이는 가장 폭이 넓은 부분이 9.5cm이고 길이가 140cm인 일반적인 형태로 문양이 없는 단색의 넥타이를 사용하였다.

남성복에서는 넥타이가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 시선이 넥타이 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리에서는 전신이나 상체 제시 여부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없다고 한 선행연구³³⁾를 참고로 하여, 전신과 상반신에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상태의 두 그림을 무채색 또는 유채색이 배색되도록 한 4장의 사진을 판단집단(대학생, 대학원생 선별집단)에게 제시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반복하여 조사한 결과 이미지 평가에서 대체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허벅지 중간까지 제시된 상반신 사진으로 자극물의 모델은 20대 우리나라 남성의 기본체형³⁴⁾의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자극물 제작은 Digital Camera(Canon)로 모델을 촬영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수정하였으며 주 작업은 CAD system(4D-Box Hi-Print Program)을 이용하여 5가지 배색방법에 따른 실험설계 <표 2>에 맞추어 완성된 컬러를 셔츠와 넥타이에 맵핑시켜 최종 자극물을 완성하고 프린트기(hp9600)로 출력하였다.

2) 자극물의 평가

본 연구의 피험자는 남녀 대학생으로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400개의 자극물을 200개의 실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 조합에 2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배색방법별로 독립변인의 조합에 의해 톤 온 톤 배색 64개, 톤 인 톤 배색 96개, 컨트라스트 배색 128개, 무채-유채 배색 96개, 무채-무채 배색 16개로 총 400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여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실험

조합당 피험자수는 실험 조합별로 20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랜덤(random) 배치되었다. 하나의 실험 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 효과를 없애기 위해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 하였다.

3) 조화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위해 '조화되는-조화되지 않는'과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고 오른쪽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 하였다. 5가지 배색방법별 배색, 즉 톤 온 톤 배색, 톤 인 톤 배색, 컨트라스트 배색, 무채-유채 배색, 무채-무채 배색에 대한 조화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93, .899, .905, .903, .916으로 나타났다.

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대학교 의상, 미술 관련학과 및 법학, 공학과의 남녀 대학생 각각 4,032명씩 총 8,06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4년 5월초~9월말 사이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 방법은 조화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 사후 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검증)를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부조화 영역

톤 온 톤 배색의 조화감 평가를 조화와 부조화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톤 온 톤 배색 64개 중 조화되는 배색수를 보면 남자는 빨강 10개, 파랑 12개, 초록 7개, 보라 7개로 총 36개의 배색

(56%)을, 여자는 빨강 10개, 파랑 9개, 보라 7개, 초록 4개로 총 30개의 배색(47%)을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조화 영역의 범위는 남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주로 한색에서 나타났다.

톤 온 톤 배색에서 4가지 색상 모두 셔츠와 넥타이의 톤조합이 lt-v, lt-d, d-dk, dk-d 톤조합일 경우 남녀 모두 조화된다는 톤조합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d-dk 톤조합은 셔츠와 넥타이 어느 쪽의 면적에 바꾸어도 조화되는 조합으로 나타났다. 면적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배색으로 셔츠는 lt, 넥타이는 v로 할 경우 조화되지만 이를 반대로 조합하면 조화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한난색과 중성색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빨강과 파랑색에서 lt-dk와 dk-v 톤조합은 남녀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보라와 초록색에서는 이들 톤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보라색에서 남녀 모두가 조화된다고 한 lt-v, lt-d, lt-dk, d-lt, d-dk, dk-d 6가지 톤조합 모두는 빨강색에서 또한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라색이 중성색이긴 하나 빨강색과 비슷한 성질을 지닌 따뜻한 중성색임을 증명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톤 온 톤 배색에서는 대체로 셔츠톤이 v인 경우

조화되는 배색의 수가 적고, 셔츠톤이 lt인 경우 조화되는 배색수가 많으며 lt-lt 톤조합은 4가지 색상 모두에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넥타이가 lt인 경우 대체로 조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넥타이색은 수트와 셔츠보다 진하고 채도가 낮은 것이 권위적인 효과를 낸다고 한 결과³⁵⁾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권위가 없는 배색은 조화되지 않는 배색이며 톤 온 톤 배색에서 조화되지 않는 배색은 대체로 권위 없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셔츠와 넥타이의 톤 인 톤 배색에 대한 조화/부조화 영역

톤 인 톤 배색의 조화감 평가를 조화와 부조화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톤 인 톤 배색 96개 중 조화되는 배색수를 보면 남자는 v톤 배색에서 4개, lt톤 배색 11개, d톤 배색 15개, dk톤 배색 19개로 총 47개의 배색(49%)을, 여자는 v톤 배색 4개, lt톤 배색 6개, d톤 배색 8개, dk톤 배색 14개로 32개(33%)의 배색을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조화 영역의 범위가 남자가 여자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톤 온 톤 배색의 조화·부조화

색상	셔츠톤 넥타이톤	v		lt		d		dk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R	v	+	+	+	+	+	-	+	+
	lt	-	-	-	-	+	+	-	+
	d	-	-	+	+	-	-	+	+
	dk	-	-	+	+	+	+	+	+
B	v	-	-	+	+	-	+	+	+
	lt	-	-	-	-	-	-	+	+
	d	+	+	+	+	-	+	+	+
	dk	+	+	+	+	+	+	-	+
P	v	-	-	+	+	-	+	-	-
	lt	-	-	-	-	+	+	+	-
	d	-	-	+	+	-	-	+	+
	dk	-	-	+	+	+	+	-	-
G	v	-	-	+	+	-	-	-	+
	lt	-	-	-	-	-	+	-	-
	d	-	-	+	+	-	-	+	+
	dk	-	+	-	-	+	+	-	-

+ : 조화, - : 부조화

〈표 4〉 톤 인 톤 배색의 조화·부조화

셔츠색 넥타이색	톤	v		lt		d		dk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R	R	+	+	-	-	-	-	+	+
	YR	+	+	+	+	+	+	+	+
	Y	-	-	+	+	-	-	+	+
	G	-	-	-	-	-	-	+	+
	B	-	-	-	-	+	+	-	+
	P	-	-	+	+	+	+	+	+
B	R	-	+	-	+	-	+	+	+
	YR	-	-	-	+	-	-	+	+
	Y	-	-	+	+	+	+	+	+
	G	-	-	-	+	+	+	-	+
	B	-	-	-	-	-	+	-	+
	P	+	-	-	-	-	-	-	+
P	R	-	-	+	+	-	+	+	-
	YR	-	-	+	+	-	+	+	+
	Y	-	-	-	-	-	+	-	-
	G	-	-	-	-	-	+	-	-
	B	-	-	-	-	+	+	-	-
	P	-	-	-	-	-	-	-	-
G	R	-	-	-	-	-	-	+	+
	YR	-	-	-	-	-	-	+	+
	Y	-	-	-	-	-	+	+	+
	G	-	-	-	-	-	-	-	-
	B	+	+	-	+	+	+	+	+
	P	-	-	-	+	+	+	-	-

+ : 조화, - : 부조화

톤 인 톤 배색에서 4가지 톤 모두 셔츠와 넥타이 색상조합이 R-YR 배색일 경우 남녀 모두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였으며, G-B 배색도 밝은 lt를 제외한 v, d, dk 톤에서는 조화되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톤 인 톤 배색의 4가지 톤 중에서 v 내에서의 색상 배색이 가장 조화되는 배색수가 적고, 다음이 lt, d, dk 순으로 짙은 톤으로 갈수록 조화되는 배색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짙은 색의 의복은 관리적 능력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은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 한다³⁶⁾는 결과와 관련하여 보면 조화되는 배색은 능력 있는 인상이나 긍정적인 인상으로 평가하게 하므로 짙은 톤 내에서의 조화로운 색상 배색은 능력 있는 인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셔츠와 넥타이의 컨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부조화 영역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평가를 조화와 부조화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컨트라스트 배색 128개 중 조화되는 배색의 수를 보면 빨강 셔츠에 초록색 넥타이의 배색을 남자는 5개, 여자는 6개, 파랑 넥타이와의 배색을 남자는 11개, 여자는 6개, 파랑 셔츠에 빨강 넥타이와의 배색을 남자는 10개, 여자는 7개, 노랑 넥타이와의 배색은 남자는 5개, 여자는 7개, 보라 셔츠에 노랑 넥타이와의 배색을 남자는 6개, 여자는 8개, 초록 넥타이와의 배색은 남자는 3개, 여자는 2개, 초록 셔츠에 보라 넥타이와의 배색을 남자는 6개, 여자는 5개, 빨강 넥타이와의 배색을 남자는 4개, 여자는 1개로 남자는 총 36개(28%), 여자는 총 30개의 배색(28%)을 조화되

는 것으로 지각하여 조화영역의 범위는 남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라스트 배색은 다른 배색에 비해 조화되는 배색의 수가 적었는데, 보색과 반대색으로 대립관계를 살린 배색은 부조화스럽거나 저항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며³⁷⁾, 이러한 결과는 색상 차가 증가할수록 조화성이 낮아진다고 한 연구결과³⁸⁾와 일치하였다.

남녀 모두가 조화된다고 한 배색을 보면 빨강 서츠는 두 가지 보색 넥타이 중 파랑 넥타이와 배색

했을 때, 파랑 서츠는 두 가지 보색 넥타이 중 빨강 넥타이와 배색했을 때, 보라 서츠는 두 가지 보색 넥타이 중 노랑 넥타이와 배색했을 때, 초록 서츠는 두 가지 보색 넥타이 중 보라 넥타이와 배색했을 때 조화되는 배색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보색 배색이라 할지라도 구성되는 색에 따라 그 조화정도는 다르게 나타나 배색의 조화정도는 구성색의 선택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된다는 연구결과³⁹⁾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보색 배색에서는 명도 및 채도가 낮은 색

<표 5> 컨트라스트 배색의 조화·부조화

서츠색 \ 넥타이색		서츠톤		v		lt		d		dk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R	G	v	-	-	-	-	-	-	-	-	-
		lt	-	-	-	-	-	-	-	-	-
		d	-	-	+	-	-	-	+	+	+
		dk	+	+	+	+	+	+	+	+	+
	B	v	-	-	-	-	-	-	-	-	+
		lt	-	-	-	-	-	+	-	-	+
		d	+	+	-	+	+	+	+	+	+
		dk	+	+	+	+	+	+	+	-	+
B	R	v	-	+	-	-	-	-	-	-	-
		lt	+	+	-	+	+	+	+	+	+
		d	+	+	-	+	-	+	+	+	+
		dk	-	-	-	-	+	-	+	+	+
	Y	v	-	-	-	-	-	+	+	+	-
		lt	+	-	-	+	+	-	+	+	+
		d	-	-	-	-	-	-	-	+	+
		dk	+	-	-	+	-	-	+	+	+
P	Y	v	-	-	+	+	+	-	-	-	-
		lt	-	-	-	-	+	+	+	+	-
		d	-	-	+	+	-	+	+	+	-
		dk	-	-	+	+	+	+	-	-	-
	G	v	-	-	-	-	-	-	-	-	-
		lt	-	-	-	-	-	-	-	-	-
		d	-	-	-	-	-	+	-	-	-
		dk	-	-	+	+	+	+	-	-	-
G	P	v	-	-	-	-	-	-	-	-	-
		lt	-	-	-	+	+	+	+	+	+
		d	-	-	-	-	+	+	+	+	+
		dk	-	-	-	-	+	+	-	-	-
	R	v	-	-	-	-	-	-	-	-	-
		lt	-	-	-	-	-	+	-	-	-
		d	-	-	-	+	-	-	-	-	+
		dk	-	-	-	-	-	-	+	+	+

+ : 조화, - : 부조화

과 높은 색과의 조합을 가장 균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색 배색에서도 색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⁴⁰⁾, 배색되는 구성색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빨강 셔츠와 초록 넥타이의 배색에서 넥타이가 dk이면 빨강셔츠의 톤은 어떠한 톤이라도 상관없이 남녀 모두 조화된다고 하였으며 빨강 셔츠와 파랑 넥타이의 배색에서 넥타이가 d이나 dk이면 빨강셔츠의 톤은 어떠한 톤이라도 상관없이 대체로 조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셔츠와 넥타이의 모든 보색 배색의 조화는 셔츠톤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 되었는데 즉 셔츠톤이 v일 때 남녀 모두 조화된다고 한 배색수는 5개, lt일 때 6개, d일 때 10개, dk일 때는 12개로 셔츠톤이 짙은 톤일수록 조화되는 배색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색상 차가 큰 두 색의 조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명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색감을 감소시켜

야 한다⁴¹⁾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4. 셔츠와 넥타이의 무채-유채 배색에 대한 조화/부조화 영역

무채-유채 배색의 조화감 평가를 조화와 부조화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6>와 같다. 무채-유채 배색에 대한 96개 중 조화되는 배색의 수를 보면 남자의 경우 무채색 셔츠에 빨강 계열 넥타이 12개, 주황 계열 넥타이 11개, 노랑 계열 넥타이 4개, 초록 계열 넥타이 3개, 파랑 계열 넥타이 10개, 보라 계열 넥타이 8개로 총 48개의 배색(50%)을, 여자의 경우 무채색 셔츠에 빨강 계열 넥타이 10개, 주황 계열 넥타이 9개, 노랑 계열 넥타이 7개, 초록 계열 넥타이 2개, 파랑 계열 넥타이 8개, 보라 계열 넥타이 7개로 총 43개의 배색(45%)을 조화된다고 평가

<표 6> 무채-유채 배색의 조화·부조화

넥타이톤 \ 셔츠색	N9		N7		N4		N2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v	R	-	+	-	-	+	-	+	+
	YR	+	+	-	-	-	+	+	-
	Y	+	-	-	-	-	-	-	-
	G	-	-	-	-	-	-	-	-
	B	+	+	-	-	-	-	+	+
lt	P	-	-	-	-	-	-	-	-
	R	+	+	-	-	+	+	-	-
	YR	+	+	+	-	-	+	-	+
	Y	+	+	-	-	-	-	-	-
	G	+	+	-	-	-	-	-	-
d	B	+	+	-	-	-	-	-	+
	P	+	+	-	+	+	+	-	-
	R	+	+	-	+	-	+	+	+
	YR	-	+	-	-	+	+	+	-
	Y	+	+	-	-	+	-	+	-
dk	G	-	-	-	-	-	-	-	-
	B	+	+	-	+	+	-	+	+
	P	+	+	-	+	+	+	+	-
	R	+	+	+	+	+	+	+	+
	YR	+	+	+	+	+	+	-	+
dk	Y	+	+	+	-	-	+	-	-
	G	+	+	-	-	-	+	-	-
	B	+	+	-	-	+	+	-	+
	P	+	+	-	-	-	+	+	-
	R	+	+	-	-	-	+	+	-

+ : 조화, - : 부조화

하여 조화 영역의 범위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색 서츠와 유채색 넥타이의 배색에는 대체로 흰색 서츠에는 어떤 톤의 어떤 색 넥타이를 착용해도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밝은 회색의 서츠에는 조화되는 유사색 넥타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특별히 dk 빨강 넥타이는 4가지 무채색 서츠 모두에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k 주황색 넥타이는 검정을 제외한 흰색,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서츠에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색 서츠에는 밝은 lt 넥타이를 제외하고는 빨강이나 파랑색 넥타이가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빨강색은 검정과 흰색과의 조합이 조화도가 높으며 파랑 계열은 검정색이나 흰색과 대비 시 가장 판독성이 떨어져 조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⁴²⁾ 결과와 일치하였다.

5. 서츠와 넥타이의 무채-무채 배색에 대한 조화/부조화 영역

무채-무채 배색의 조화감 평가를 조화와 부조화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무채색과 무채색의 배색 16개 중 조화되는 배색수를 보면 남자는 9개(56%), 여자는 5개의 배색(31%)을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여자보자 남자가 조화 영역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조화성이 높다는 선행연구⁴³⁾와 어느정도는 일치하지만 유채색의 톤조합인 톤 온 톤 배색이나 무채색 서츠와 유채색 넥타이의 배색보다는 조화되는 배색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채-무채 배색에서 여자는 흰색 서츠일 때만 조

화로운 배색이 존재하였으나 남자는 흰색 서츠에는 4가지 무채색의 넥타이가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밝은 회색 서츠에는 어두운 회색의 서츠가, 어두운 회색 서츠에는 흰색을 제외한 무채색 넥타이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검정색에는 동일한 검정색 넥타이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무채색 간 조화감 평가에 남녀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복의 서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을 배색방법별로 그 조화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색의 3속성 중 한 개의 속성 즉,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와 색상에 변화를 주어 lt, d, dk의 3가지 톤과 기준색이 되는 v톤이 되도록 한 후 배색유형인 톤 온 톤 배색(64), 톤 인 톤 배색(96), 컨트라스트 배색(128), 무채-유채 배색(96), 무채-무채 배색(16)으로 하여 그 조화정도를 평가하여 조화 영역과 부조화 영역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가지 배색유형에서 조화 영역과 부조화 영역의 배색이 존재하고 조화를 이루는 배색의 분포 범위는 배색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남녀 모두 톤 온 톤 배색과 무채-유채 배색이 톤 인 톤 배색이나 컨트라스트 배색보다 조화를 이루는 배색의 분포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화감 지각에서 조합된 총 400개의 배색 중에 남자 190개, 여자 152개로 조화를 이루는 배색의 분포 범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배색유형별로 조화감 지각에서 남녀 모두

<표 7> 무채-무채 배색의 조화·부조화

넥타이색 \ 서츠색	N9		N7		N4		N2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N9	-	+	-	-	-	-	+	-
N7	+	+	-	-	-	+	-	-
N4	+	+	-	+	-	+	+	-
N2	+	+	-	-	-	+	-	+

+ : 조화, - : 부조화

공통된 반응을 보이는 배색이 있다. 남녀 모두 공통된 반응을 보인 배색을 보면, 톤 온 톤 배색에서 4가지 색상 모두 셔츠와 넥타이의 톤조합이 lt-v, lt-d, d-dk, dk-d 톤조합일 경우 남녀 모두 조화되는 톤조합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d-dk의 톤조합은 셔츠와 넥타이 어느 쪽의 면적에 바꾸어도 조화되는 조합으로 나타났다. 톤 인 톤 배색에서는 v, lt, d 내에서 빨강 셔츠와 주황 넥타이의 배색을 남녀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컨트라스트 배색에서는 대체로 넥타이가 dk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유채 배색에서는 흰색 셔츠에는 대부분의 넥타이가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두운 회색 셔츠에는 dk의 빨강이나 주황 넥타이를 제외하고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채-무채 배색에서는 흰색(N9) 셔츠에 동일한 흰색 넥타이를 제외한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 넥타이를 남녀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넷째, 셔츠와 넥타이의 조화되는 배색 중에는 비슷한 면적비를 보이는 선행연구의 한복의 치마/저고리 배색의 조화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배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넓은 면적-좁은 면적 배색에는 다음과 같은 배색이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톤 온 톤 배색에서는 빨강의 lt-d, d-lt, lt-v, dk-v, 초록의 d-dk, dk-d의 배색, 톤 인 톤 배색에서는 동일한 톤 간의 v 빨강-빨강의 배색, dk의 빨강-노랑, d의 파랑-노랑, d의 파랑-초록, d의 보라-파랑의 배색, 컨트라스트 배색에서는 v 빨강-dk 초록, dk 파랑-v 노랑, dk 파랑-lt 노랑, dk 파랑-d 노랑, d 보라-v 노랑, dk 보라-lt 노랑, dk 보라-d 노랑의 배색, 무채-유채 배색에서는 어두운 회색(N4)-v 빨강, 검정색(N2)-v 빨강, 어두운 회색(N4)-lt 빨강, 어두운 회색(N4)-lt 보라의 배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화 또는 부조화로 지각되는 배색의 구분이 배색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어떤 색과 어떤 톤의 셔츠 또는 어떤 색과 어떤 톤의 넥타이가 조합되느냐에 따라 조화정도는 배색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서 색이나 톤이라는 낱개

의 정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변한다는 형태주의적 접근이론⁴⁴⁾을 지지해준다.

본 연구는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방법에 따른 조화 영역과 부조화 영역을 밝힘으로써 색채조화의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남성복 디자인을 더욱 감각적이고 고급화로 이끌 뿐만 아니라 남성복의 색채 기획이나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I)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pp. 731-742.
- 2)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I)-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 443-453.
- 3) 강경자, 문주영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II)-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pp. 962-973.
- 4) 강경자, 정수진 (2005).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V)-컨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6), pp. 825-836.
- 5)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pp. 197-210.
- 6)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pp. 311-326.
- 7)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pp. 312-320.
- 8)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립, 색 및 맥락의 영향-대전 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pp. 312-320.
- 9) 송선옥, 이인자 (2001).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 얼굴형 및 체형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369-378.
- 10) 김현지 (2003). 남성 선거입후보자의 옷차림이 유권자들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최유진, 이명희 (2004). 남성의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6), pp. 131-140.
- 12) Itten, Johannes (1996). *The Art of Color*. New York: Reinhold Pub.
- 13) Faber Birren (1934). *Color Dimensions*. Chicago: The crimson press.

- 14)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21.
- 15) 김현진 (2002). 국내 캐주얼웨어와 스포츠웨어의 세분시장별 색채특성과 색채차별의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송지영 (2002).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세분시장별 활용색과 배색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조민정. 앞의 책, p. 121.
- 18) 권혜숙, 심은하 (200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3), pp. 139-152.
- 19) 박영실, 권미정, 이정옥, 안옥희 (1994). 문-스펜서의 색채조화론에 의거한 피부색과 복장색의 조화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지*, 8(6), pp. 528-537.
- 20)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p. 175.
- 21) 조민정. 앞의 책, p. 122.
- 22)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pp. 395-406.
- 23) 内藤章江, 橋本令子, 加藤雪枝 (2001). ビジネススーツの着装イメージと色彩効果. *織消誌*, 42(12), pp. 863-871.
- 24) 内藤章江, 小林茂雄 (2002). 女性用スーツの着装イメージと色彩効果. *織消誌*, 43(10), pp. 658-668.
- 25) 강경자. 앞의 책, pp. 731-742.
- 26) 강경자. 앞의 책, pp. 443-453.
- 27) 강경자, 문주영. 앞의 책, pp. 962-973.
- 28) 강경자, 정수진. 앞의 책, pp. 825-836.
- 29) 이경순, 김희섭 (1998).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p. 157-164.
- 30) CFT. 04, 05 마켓컬러. <http://cft.or.kr/market>.
- 31) Fashion Center Korea. 04, 05 트렌드컬러. <http://fck.or.kr/tr/color>.
- 32) 실용한국표준색표집 (1991). 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 33) 강경자, 임지영. 앞의 책, pp. 312-320
- 34) 사이즈코리아 (1997). 국민표준체위조사. from <http://sizekorea.ats.go.kr/>.
- 35) Molloy, J. T. (1978). *Dress for Success*. N. Y., Warner Book Inc.
- 36) Francis, S. M., & Evans, P. K. (1987). Effect hue, value, and garment style on college recruiters' assessments of employment potential.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6, pp. 87-93.
- 37)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p. 6.
- 38) 조민정. 앞의 책, p. 121.
- 39) Granger, G. W. (1955). The Prediction Preference for Color Harmony. *J. gen. Psychol.* 52, pp. 213-222.
- 40) 양지영. 앞의 책, p. 84.
- 41) 조민정. 앞의 책, p. 163.
- 42) 조민정. 위의 책, p. 122.
- 43)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p. 175.
- 44)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pp. 258-290.